

전남 동부권

자전거 이용 더 편리해진다

도, 순천·광양·곡성 등 전용도로·시설 확충

순천시를 비롯해 광양, 곡성 등 전남 동부권에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

전남도는 순천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자전거 이용 우수 시·군인 광양과 곡성의 자전거도로 정비에 나서는 등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범국민적 자전거이용 붐 조성 및 생활화를 위해 실시한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중앙 합동평가 결과 광양시와 곡성군이 우수 시·군

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로 국비 9억 5000만원을 2011년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양시에 5억 7000만원, 곡성군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자전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단절구간 연속성 확보 등 기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2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지원받아 자전거 전용도로 16.8km를 개설하고 자전거교육과 문화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전거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자전거 이용이 주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목표를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정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신규로 보강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신규 자전거도로 개설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되게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항긋한 취나물 수확이요~”

광양지역 농민들이 비닐 하우스에서 봄 입맛을 돋구는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광양 취나물은 비가림시설을 이용해 일반재배에 비해 한달이상 수확을 앞당겨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구제역 때문에...”

고흥 교묘축구연맹전 연기

고흥군은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려 했던 '제47회 스타스포츠클럽 춘계 한 곡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전국대회와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꾀해왔던 군으로는 축구연맹과의 신뢰문제 때문에 대회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가 없고 '고흥축산이 무너지면 고흥이 무너진다'는 군의 강한 의지가 대회 연기라는 과감한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회는 고흥군이 지난해 11월 유치를 신청해 1월 6일 개최가 확정된 후 전국의 37개팀이 참가신청을 했다 /동부취재본부=주지중기자 gjju@

여수박람회 스마트 하게 만난다

조직위, 트위터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

여수시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오픈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트위터(@yeosu-expo) 팔로워 수가 1만3000여명에 육박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 올해 말까지 3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수박람회 트위터를 통해 여수박람회의 주제와 내용뿐만 아니라 여수 지역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생생하게 접

할 수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역시 트위터(@yeosuxpoutour@expo-2012) 2개를 개설해 박람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 폰, 박람회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에 나서고자 관련 홍보물을 요청하는 팔로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7월엔 종합병원이라 불러주세요”

광양 사랑병원 승격 준비 작업 본격화

광양 사랑병원이 오는 7월 종합병원 승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해 시민들이 고품격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인구 15만명의 도시로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신생도시인 중마면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성용 시장의 의료 공약사업인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맞춰 우선 기존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크다.

지난 2001년 개원한 광양사랑 병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의료진 확보와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면서 병원 이

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학병원급에서나 보유하고 있는 독일 1.5T 지멘스 6세대 MRI를 도입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장비 도입으로 초기 뇌경색이나 뇌종양을 쉽게 감별할 수 있게 됐다.

고준석 사랑병원 원장은 "현재 14명의 의료진이 포진해 있지만 상반기 안에 임상병리과와 영상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면서 "지난해 말 주차장 면수를 30면을 증면해 6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불편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7400㎡의 건축면적을 갖추고 있는 광양 사랑병원은 ▲158 병상 ▲의료진 14명 ▲간호사 80명을 보유하고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순천 무인자전거 ‘온누리’ 상표등록

순천시민의 발인 공영자전거 ‘온누리’가 상표 등록이 됐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무인 공영자전거 명칭을 공모 접수된 211건을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모든 세상을 뜻하는 옛 우리말로 아름다운 온 천지를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온누리’로 선정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 1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1월 26일 등록 결정서를 송부 받았다.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면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이 확보돼 타 지자체와 법인,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에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누리’는 지난 2009년 10월 본격



적인 서비스에 들어가 현재 11개소에 자전거 166대가 설치돼 있으며, 올 상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무인 공영자전거인 ‘온누리’가 녹색 교통 수단으로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농어촌공 농한기 일자리 창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는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친서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지사는 지난해 관할 11개 읍·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일제정비 사업에 30일 동안 1300만원을 투입, 177명의 지역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2100만원을 투입해 2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용·배수로 2000여km ▲저수지 45개소 ▲양수장 33개소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 이전 3월까지의 수로에 퇴적된 토사 제거, 각종 수문 등을 점검·정비하고 저수지 주변과 상·하류 지역의 환경정화, 급·배수 등 물관리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수도로”

전주시 상설공연장 조성 등 활성화 대책 발표

전주시는 9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관광 인프라 추가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옥마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우선 은행로~승광재 구간에 골목장터와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한옥마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공예품과 생활용품과 사고파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전과 명품관 주차장, 은행로 샘지공원 등 지에는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 시립예술단과 전주시내 100여개 예술단체, 동호인이 두루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가마체험과 벼슬놀이체험, 청사초롱 소원빌기 등의 문화체험 행사를 늘리고 썰매대회, 스텝대회, 비빔

밥축제 등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마을축제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술을 빚어 관광객에 파는 '작은 양조장사업'과 공동 세탁소 운영과 같이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3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맞아 걷고 싶은 거리를 확대하고 차 없는 날을 운영해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라기 한스타일관광과장은 "전통 문화를 강화하고 보행권을 확보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주민도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하며 주민의식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한옥마을을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은철기자 k0765@

새만금 쇠돌고래 의문의 떼죽음

방조제 안쪽 100여마리 발견...농어촌공 사실 은폐 의혹

쇠돌고래의 일종으로 '상괘리'로 불리는 소형 돌고래 100여 마리가 지난 3일부터 1주일 사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떼죽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 운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쇠돌고래의 떼죽음이 수질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처리하는 등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쉬쉬해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군산해경,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산시 신시도 배수갑문과 가력도 사이의 새만금방조제 내측 자갈밭 위와 내측 수면에서 10여 마리의 상괘리가 숨진 데 이어 7일과 8일에도 이 일대에서 90여 마리가 추가

로 숨진 채 발견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3일에는 12마리, 7일과 8일에는 각각 60여 마리와 30여 마리 등 총 103마리를 모두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군산의 한 소각장에서 처리했다.

고래목 물매지과의 포유류인 상괘리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6종의 고래 중 하나로, 보통 '돌고래'로 불린다. 몸빛은 회백색이며, 몸길이는 1.5~2m에 달한다.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동해안 일대와 서해에서도 흔히 목격되지만, 새만금방조제 일대에서 대규모로 떼죽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여년간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계속된

한파로 내수면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포유류인 쇠돌고래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굶주려 죽은 것"이라며 "방조제 건설 이후에도 오징어와 주꾸미, 숭어, 전어 등이 풍부한 담수호 내부 쪽에서 상괘리가 수백여 마리가 떼지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들 상괘리가 무리를 지어 배수갑문을 통해 내측으로 들어왔다가 한파로 인해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도 수질문제보다는 한파로 인한 질식 및 동사로 추정하고 환경전문가들에 의뢰해 이들 상괘리의 유입 경로와 떼죽음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전북취재본부=박영석기자 nogusu@

격포 공항마을 해안경관 살린다

부안군, 45억 투입 2013년까지 조성

부안군 격포 공항마을이 국토해양부 주관의 해양 경관 이촌마을로 본격 조성된다.

9일 부안군에 따르면 공항마을 일원 전체 65ha 면적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3년말 까지 14개 분야의 경관형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8억을 투자해 상반기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해안선 복원 및 녹지심터 조성 등의 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항마을은 지난해 10월 9일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 초광역적인 연계와 해안경관 주변의 보전, 관리 및

활용 차원에서 공모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공항마을은 60세대 200여명이 옛 바닷가 풍경을 간직한 채 웅기중기 못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촌마을이다.

이 사업으로 난개발 방지는 물론 해안선 복원, 주거환경개선, 가로경관 및 산책로 조성과 간판·안내판 정비 등의 세부사업을 공항마을의 역사성을 부여하는 한편 주변 관광지의 시대적 연계성 모색 및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특색이 있는 해안 주거경관 마을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들리나요? 봄이 오는 소리...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9일 군산 미 공군 비행장내 실내체육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연주회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비롯해 '나팔수의 휴일', '할리우드 영화음악',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등을 선보였다. <군산시 제공>

전 북

단 신

‘한국 전통소리’ 국가 DB 구축사업 선정

전북도의 '한국전통 소리문화 DB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의 국가 지식 사업에 최종 선정돼 7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북도의 소리문화 DB사업은 관소리와 농악, 민요, 사물놀이 등의 공연 동영상(총 7000여건, 7만여 분)과 8000여 건의 해설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는 '한국전통소리 멀티클립 DB 구축사업'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www.koreamusic.org)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전통소리 모바일홈페이지(m.koreamusic.org)'를 개설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81회 춘향제전위원회 출범

제81회 춘향제전위원회 출범식이 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전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전위원장에 크라운해태제과 운영담당 회장이 추대됐으며, 집행위원장에 춘향문화선양회 운영장 회장이

위촉됐다. 단오(음력 5월 5일) 전후에 열리는 올해 춘향제전은 전통문화와 국악을 기반으로 하되 '속속시대 속으로' 등 주제성과 체험성에서 집중하고 시민단체와 기관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 지평선황금보리사업단-진봉면 MOU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명품화사업단(단장 유창성)과 진봉면 경관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길승)는 9일 진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사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사업단은 보리밭 축제와 지평선 황금보리명

품화사업을 연계해 김제지역 보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김제의 보리 가공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봉면 보리밭 축제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봉면 심포리 망해사앞 보리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임실군 '민원 안내 도우미제' 호평

임실군(군수 강완목)은 첫 방문 민원인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처리를 일사천리로 해결해준고자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이달부터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민원업무 숙지도

가 높은 6급이상 담당직원을 군청 과 읍·면 민원실 대기실에 상주시켜 관련부서 안내와 민원신청서 대리 작성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서은중기자 seo@